생태 보전·환경 실천으로 새해 '출발'

부산불교환경연대, 1월 31일 '큰고니 먹이 주기'

어린이 · 학부모 등 70여 명 동참
고구마 · 볍씨 뿌리며 생명 존중
인도 소녀 위한 면생리대 제작도
자연 순환 업사이클링 활동 지속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 이도경 부산지사장

부산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안도스님)가 생태 보전과 국제 연대, 생활 속 환경 실천을 아우르는 활동으로 새해 행보를 시작했다. 겨울 철새 보호 현장부터 해외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 자원 순환과 일회용 줄이기 실천까지 신년 초부터 다양한 현장 활동을 이어 가고 있다.

부산불교환경연대는 1월 31일 맥도생태공원에서 겨울 철새 큰고니의 생존을 돕고 습지 보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큰고니 먹이 주기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부산불교환경연대 회원을 비롯해 대원각사와 도림사, 반야선원 신도, 해운대 지역 6개 초등학교 어린이와 학부모 등 70여 명이 참여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큰고니의 먹이가 될 고구마 150kg과 볍씨 80kg을 직접 뿌리며 생명 돌봄의 시간을 가졌다.

상임대표 안도 스님은 인간과 자연의 상호의존성을 강조하며 "이 새들과 자연은 인간과 분리된 대상이 아니라 서로의 조건으로 존재하는 생명공동체"라며 "어린이들이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자연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함께 살아가는 이웃으로 느끼고, 동식물을 아끼는 마음을 삶 속에서 키워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동대표 정찬 스님은 "해마다 이 자리를 지켜보면서 작년보다 고니의 개체 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체감하고 있다"며 "먹이 부족과 서식 환경 악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현실을 보여 주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스님은 아울러 "그럼에도 이 행사를 계속 이어 가는 이유는, 어린이들이 직접 자연과 마주하고 생명을 돌보는 경험이 환경을 지켜 갈 미래의 힘이 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강성화 '습지와 새들의 친구' 사무국장은 "큰고니의 주요 먹이터였던 명지갯벌과 낙동강 하구 일대가 개발과 수위 변화로 먹이 자원이 크게 줄어든 상황"이라며 "인위적인 환경 변화로 월동지를 옮길 수밖에 없는 큰고니의 현실은 습지 보전과 체계적인 생태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 준다"고 설명했다.

부산불교환경연대는 생태 현장 활동과 함께 국제 연대 활동도 이어 가고 있다.

지난 1월 14일과 21일에는 부산 반야원에서 '작은 선물 만들기' 활동을 열고, 인도 불가촉천민 마을에 거주하는 소녀들을 위한 다회용 면생리대 200개를 제작했다. 이번 활동은 위생용품 부족으로 생리 기간마다 건강과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소녀들을 돕기 위한 활동으로, 여래사불교대학 '무진등'에서 후원한 100만원이 제작비로 사용됐다.



부산불교환경연대가 생태 보전과 국제 연대, 생활 속 환경 실천을 아우르는 활동으로 새해 행보를 시작했다. 사진은 1월 31일 맥도생태공원에서 열린 '큰고니 먹이 주기 행사' 후 기념촬영 사진.

이날 부산불교환경연대 회원을 비롯해 신대승네트워크, 대불련 총동문회 회원들이 동참했으며, 도림사 주지 정찬 스님과 대원각사 및 미소원 신도와 회원들도 함께해 손바느질과 재봉바느질로 정성을 보탰다. 제작된 면생리대는 2월 초 인도 현지에서 불가촉천민 마을과 연계해 활동하는 단체를 통해 전달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녹색사찰 부산 1호 도림사가 추진해 온 '현수막 가방 만들기' 활동은 시니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고 있다. 2월 3일에는 동삼종합사회복지관에서 현수막 가방 만들기 전수 시간이 열려, 폐현수막을 활용한 업사이클링 과정이 공유됐다. 환경 실천이 시니어 일자리로 연결된 사례다.

생활 속 일회용 줄이기 활동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도림사는 신문지로 참기름병 봉투와 과일 봉투를 접어 사찰과 참기름집에서 사용하고 있다. 특히 참기름 사용이 많은 추석과 설 명절을 앞두고는 신도와 봉사자들이 신문지 봉투 5000여 개를 제작해 참기름집에 전달해 왔다.

부산불교환경연대는 "올해도 생태 보전 현장 활동을 중심으로 국제 연대와 생활 속 환경 실천을 꾸준히 이어 갈 계획"이라며 "철새 보호와 습지 보전 활동을 비롯해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 자원 순환을 통한 업사이클링 활동 등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실천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부산파라미타, 청소년 전인 성장 사업 확대

2월 4일, 2026년 정기 총회
사업계획 및 운영 방안 확정



부산파라미타청소년협회가 2026년 한 해 동안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부산파라미타청소년협회(협회장 백명숙)는 2월 4일 부산 더파티 시청점에서 '2026년도 정기총회'를 열고, 올해 사업 계획을 확정했다.〈사진〉

협회는 올해 분회 및 회원 모집을 시작으로 발대식을 개최하고, 청소년의 달을 맞아 나눔 봉사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어 문화 예술 프로그램과 자타카 영어 말하기 대회, 전국 단위 연합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의 소통 역량과 공동체 의식 함양에 나선다. 아울러 분회별 체육 수련 프로그램과 명상 및 인성 함양 프로그램을 운영해 성장을 도모하고, 청소년 어울마당을 통해 자기 탐색과 사회 참여의 기회를 넓힌다는 계획이다.

총재 정오 스님(범어사 주지)은 사무총장 해공 스님(범어사 포교국장)이 대독한 격려사를 통해 "알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내실을 다지고, 더욱 도약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범어사, 도량 수호 발원 사천왕재 봉행

1월 31일, 경내 사천왕문서
"성찰과 다짐 세우는 계기"



금정총림 범어사(주지 정오 스님)가 1월 31일 경내 사천왕문에서 도량과 사부대중의 평안을 기원하는 사천왕재를 봉행했다.〈사진〉

범어사 천왕문은 2010년 12월 15일 방화로 전소되는 아픔을 겪었다. 이후 1년 3개월 만인 2012년 3월 26일 기존 모습대로 복원되면서 범어사는 도량 수호의 의미를 다시 세우는 계기를 맞았다. 이를 바탕으로 범어사는 매년 음력 12월 15일에 사천왕재를 봉행하며 사찰의 안녕은 물론 화재와 각종 재난으로부터 지역사회와 시민의 안전을 기원하고 있다.

주지 정오 스님은 "사천왕재를 통해 부족했던 점을 성찰하고 새로운 다짐을 세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차고 비는 달처럼' 한·중 불교예술전 '무상의 달'

왕암사 · 대전민화작가협회 등 주관
한 · 중 불교 예술가 20여 명 참여

불교의 무상 사상을 예술로 풀어낸 한·중 현대 불교예술 교류의 장이 경주에서 열렸다.

왕암사(주지 세봉 스님)와 중국 민족박물관, 대전민화작가협회가 공동으로 참여 주관한 한·중 현대 불교예술 작품전 '무상의 달'이 2월 3일 동국대 WISE 캠퍼스 갤러리 백상에서 개막했다. 전시는 2월 8일까지 진행됐다.



개막식에서 진행된 테이프 커팅 모습.

전시는 불교의 핵심 사상인 무상(無常)을 주제로, 한국과 중국의 현대 불교 예술가 20여 명이 참여해 삶의 생성과 소멸, 순환의 이치를 예술로 풀어낸 자리다.

전시에는 관세음보살 등 불교적 상징과 불교문화를 주요 소재로 삼아온 중국 현대 작가들과 한국의 불교민화 작가들이 함께 참여해 불교문화 예술의 현재를 다층적으로 보여 준다. 전시 제목 '무상의 달'은 차고 비고 다시 차오르는 달의 흐름을 통해 끊임없이 변화하는 존재의 본질을 상징적으로 담아냈다. 중국 작가들의 작품 70여 점과 한국 작가들의 작품 30여 점 등 총 100여 점의 작품이 출품됐다.

이날 개막식에는 통도사 총무국장 진응 스님, 양산 신흥사 주지 호법 스님, 김민경 한국부탄우호협회 회장을 비롯해 중국민족박물관 관장과 작가들이 참여했다.

이번 전시는 세봉 스님이 20여 년간 중국을 오가며 오대산과 소림사 등 중국 불교계와 교류해 온 인연을 바탕으로 기획됐다. 세봉 스님은 "요즘 세계를 보면 욕심과 이기심에서 비롯된 갈등과 분쟁이 반복되고 있다"며 "비울 줄 알고 고정되지 않은 세상을 바라보는 지혜를 예술을 통해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조계종부산聯, 승려연수교육 '선시' 강좌

3월 10일~4월 7일 화요일
안국선원 시원암서 총 5회

조계종부산연합회(회장 목종 스님)가 조계종 스님들을 대상으로 선시(禪詩)의 의미와 불교적 가치를 조명하는 강좌를 개설한다.

이번 강좌는 3월 10일부터 4월 7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안국선원 시원암에서 총 5회에 걸쳐 진행된다. 강사는 현진 스님이 맡았다.

현진 스님은 대구 동화사 율주로, 계율과 선 전통에 대한 연구와 강설을 이어 오고 있다. 이번 강좌에서는 조사와 선사들의 선시에 담긴 선적 사유와 수행의 맥락을 중심으로, 선시가 불교 수행 전통에서 지닌 의미와 역할을 살핀다. 선시는 문학적 표현을 넘어, 깨달음의 언어이자 법문으로 이해되는 수행의 언어라는 점을 짚을 예정이다.

수강료는 15만원이며, 전 과정 이수 시 조계종 승려연수교육 인증과정으로 30점이 부여된다. 정규 수강 외에 청강도 가능하며, 청강비는 10만원이다. 051-501-7554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출강 및 통신 2026학년도 제35기 불교 법사(Dharma-bhanaka)

법사 교육 신입 수강생 모집

법사(法師)가 되어 보지 않으시렵니까?

◆ 한국불교법사대학은 법사 양성의 독보적인 전문 교육 도량으로서 35년의 학풍을 구축하고 있으며 또한 법사 활동 외연 확장을 위해 숲명상전문가 2급 자격 취득(산림청 민간자격증)의 기회도 겸비할 수 있습니다.

① 법사자격 법위를 취득할 수 있는 유일한 배움 도량
② 불교학 전공 저명한 교수진으로 강의 진행
③ 불교기본의식을 실습 지도
④ 법사품수 후 사찰 · 포교원 등록시 행정상 보호받도록 지원

불교 법사 양성 전문교육 (1년제)

모집과정	· 법사과정(1년) · 대법사과정(2년)
모집학반	· 출강반 · 통신반 – 동영상미디어 강좌
입학자격	· 불심이 돈독한 분 ·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 · 법사로서 포교활동을 희망하는 분 · 포교원 및 사찰을 개원하려는 분 · 불교지도자로서 사회에 봉사하려는 분

원서 교부 및 접수
2026년 2월 25일까지(현재 접수중)

원서 교부 및 접수처
본 대학 교무처(방문·우편·팩스·메일)

♣ 전화 문의하시면 모집요강과 입학원서를 보내드립니다.

깨달음의 법(法) · 전법하는 사(師)
한국불교법사대학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3, 한선빌딩 3층
홈페이지 : http://pubsa.net(검색창에 한국불교법사대학)

문의 02)733-1959, 02)720-1836

동국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사찰경영최고위과정과 함께하는

붓다자나 명상

붓다자나는 닛다싸왓투 경에서 "이것은 내가 스스로 깨닫고 실현하여 선언한 것이다"라고 전하는 것으로 석가모니 붓다를 실현한 성불의 비밀이며 고따마의 수행경험을 순차에 따라서 집대성한 여래의 정법명상입니다.

이곳에는 붓다가 되는 최상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데 일곱 단계 진리의 문에 들어가 법신을 구족하고 서른 두 개의 비밀금고를 열어 영적성장에 도달하며 백 마흔 한 가지 담마토크로 기록된 아가마를 실천하라고 합니다.

동국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사찰경영최고위과정에서는 이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전수하여 사찰의 청년불자 증가를 돕고자 하오니 관심있는 수행자 여러분의 수희동참을 바랍니다.

모집대상 스님 또는 교역직 종사자
모집기간 2026년 1월 ~ 2026년 2월
교육내용 붓다자나 전문가 과정
교육기간 1년(2학기, 매주 수요일)
모집인원 선착순 20명
개강일시 2026년 3월 11일(수) 오후 2시

동국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사찰경영최고위과정
입학문의 책임교수 010-8775-2340 / 학사운영실 02-2260-8887